



박소현의 섹.시.토.크

K는 얼마 전 남편의 아동 컬렉션을 발견했다. 아동은 컴퓨터 내문서 안 '업무'폴더 안에 '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었다.

실을 까먹어 버렸다. 거사를 치려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업무처리를 하고 자야 한다며 슬그머니 서재로 가선 한 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가끔 일이 그렇게 많으며 서재문을 열어보기도 했지만 꼭 노크를 하고 문을 연 것이 실수라면 실수였다. 급하게 문을 열었다 해도 컴퓨터 화면



이 보이지 않아 남편이 뭘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노크를 안했다면 결정적 장면(?)을 목격했을 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남편은 약간 놀란 얼굴로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먼저 자라는 말을 했다.

K는 우선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 연차가 K보다 많은 친구는 부부문제에 관해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동도 단계가 있잖아. 처음에는 소프트한 걸로 시작해서 하드코어로 진행하거든. 문제는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니까 일반적인 섹스에 흥미를 못 느끼게 되나봐. 내 친구는 남편이 아동에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친구말대로 아내와의 섹스는 영영 멀어질 것인지, 전혀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이 답답했다.

그날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남편은 11시가 넘자 업무가 남았다며 서재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K는 모른 척 집안을 정리하고 침실로 들어왔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침실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납작하게 엎드려 있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오해는 하지마" "알았어. 컴퓨터 용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웠으니까 당신도 오해는 하지마."

"응, 잘했어. 나도 지우려고 했어." 남편은 납작하게 엎드려 있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참, 우리 속제 해야지. 오늘 하면 되나?" "오늘은 그냥 자."

K의 차가운 말투에 남편은 '찍'소리로 낼 수 없었다. 10분 전 남편이 컴퓨터를 켜고 '새 프로젝트' 폴더에서 본 건 별거벗은 여자가 아니라 별거벗은 아가들이었다.

남편의 아동 컬렉션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친구말대로 아내와의 섹스는 영영 멀어질 것인지, 전혀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이 답답했다.

그날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남편은 11시가 넘자 업무가 남았다며 서재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K는 모른 척 집안을 정리하고 침실로 들어왔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침실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납작하게 엎드려 있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오해는 하지마" "알았어. 컴퓨터 용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웠으니까 당신도 오해는 하지마."

"응, 잘했어. 나도 지우려고 했어." 남편은 납작하게 엎드려 있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참, 우리 속제 해야지. 오늘 하면 되나?" "오늘은 그냥 자."

K의 차가운 말투에 남편은 '찍'소리로 낼 수 없었다. 10분 전 남편이 컴퓨터를 켜고 '새 프로젝트' 폴더에서 본 건 별거벗은 여자가 아니라 별거벗은 아가들이었다.

남편은 납작하게 엎드려 있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오해는 하지마" "알았어. 컴퓨터 용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웠으니까 당신도 오해는 하지마."

검색절정 키워드

'41시간' 이번 주 네티즌에게 인기를 끈 검색어다. 미국에서 한 남성이 41시간 동안 비좁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터넷 세상에 화제가 됐다.

엘리베이터에 41시간 갇힌다면...

면을 타고 올라다가 다시 쓰러져 누워있기를 반복한 끝에 그는 41시간만에 구조됐다.

니콜라스의 처절한 '41시간'이 담긴 동영상은 뒤늦게 공개되자 네티즌은 "어떻게 이를 동안 견뎌왔는지 모르겠다. 좁은 공간에서 41시간을 버티는 게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그맨 이윤석도 결혼 발표를 하면서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36세 노총각 이윤석의 예비 신부가 5살 연하의 미모의 한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반응은 더 뜨거웠다.

'국민 약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윤석은 결혼 보도가 나가자 "약 좋아하더니 약을 짓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며 공개적으로 결혼 사실을 인정했다. 네티즌은 "매일 약을 입에 달고 살다니 정말 한의사랑 결혼하네요. 천생연분입니다. 행복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입대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색어 순위에 올랐던 최훈민은 입대 3일 만에 귀가조차 못되면서 다시 한번 인기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한 남성이 41시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었던 사실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Go board game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legend for '광주 유단자회 리그전'.

Baduk (Go) article titled '구차스런 땅바닥 기기' (Awful ground crawling) by 김기호, discussing a game situation.

Baduk (Go) article titled '바둑소식' (Baduk News) by 허영호, reporting on a tournament.

리빙 센스 (Living Sense) column with '과일·채소 씻기' (Washing fruits and vegetables) and tips for cleaning produc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 telling) column for April 25th,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tunes.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or skin care.

English learning section '굿모닝 잉글리쉬' with a dialogue about 'Where are the bedspreads?' and a vocabulary list.

English learning section '오하오우 니혼고' with a dialogue about 'いつ頃になるかわかりません' and a vocabulary list.

English learning section '니하오 쑹구위' with a dialogue about '会一点儿' and a vocabulary list.

Article '한자 이야기' (Hanja Story) about the character '衆' (Jung) and its meaning in various contexts.